

굴비의  
‘비명’



한우의  
‘한숨’



## “밥줄 끊는 법이 어디있소?”

김영란법 시행 앞둔  
영광 굴비·장흥 한우농가 르포

“땀흘려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뇌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  
우린 뿔 먹고 살라는 말이나”

“밥상에 오르는 굴비를 뇌물로 보는 놈들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영광 사람들 밥줄 다 끊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 당장 씨알 작은 조기를 잡기 위해 어민들은 그물부터 바꿔야 할 판이여. 안 그래도 안 잡히는 조기, 씨가 다 마르겠지.”

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 앞둔 1일 영광군 법성포.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을 맞던 해변굴비 황성식(46)씨는 “(김영란법은) 현대차 기합한테 아반떼 승용차만 팔아서 운영하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라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관련기사 3면〉

대를 이어 40년째 굴비를 판매해온 황씨는 코앞에 닥친 다음달 추석 명절부터가 걱정이다. 한 마리당 한 뺨도 안 되는 굴비 1두들(20마리)을 꺼내 보여주던 황씨는 “이제 현지에서는 6만원짜리엔 백화점에 가면 8만~9만원도 넘는다”며 “주는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이보다 작은 크기의 굴비를 누가 선물하겠느냐.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성포는 올해 가장 어려운 해를 보내고 있다. 잡히는 조기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해서다. 3년 전 경매에서 7만원에 거래되던 조기 1박스(130마리 기준)는 현재 21만원에 거래되는 등 ‘원조기’ 가격이 3배가량 오른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매가격은 30~40% 오르는 데 그쳤다는 소매업계의 설명이다.

장원굴비 강기삼(29·법성포 중·도매인 협회 재무담당)씨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굴비 선물세트가 10마리 기준 10만원, 15만원선인데 이마저도 납품하는 쪽에서는 생산원가를 빼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나마도 백화점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일 영광군 법성포 거리는 매장마다 줄지어 걸린 굴비와 달리 찾는 이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적한 모습이다. ‘영광 굴비’의 본고장인 법성포 주민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굴비 매출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 대형마트에서 이런 물건들이 안 팔리면 소매업계는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선물세트가 명절에 주로 판매되고, 명절 매출이 연간 매출의 50~80%까지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성포 굴비 업계의 매출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10마리에 30만, 50만, 100만원에 거래되는 명품 굴비는 판로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다.

영광군수협은 국내 1조원에 달하는 굴비 유통시장에서 영광이 4000억원의 물량을 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약 2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게 영광군수협의 분석이다.

장흥 한우농가와 판매점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흥 안양면 김영중(52)씨는 “당장 한우 선물세트의 95% 이상이 10만원 이상이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게 20만원대인데 이런 물건들이 안 팔리면 한우농가는 다 망한다”며 “수입산 소고기와 경쟁하려면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장려한 정부가 이제는 선물세트 포장을 위해 저가의 수입산 소고기를

장려하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김영란법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농축수산물만 땀흘려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금품으로 보는 것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장흥한우 판매점들은 5만원 수준의 선물세트를 만들 수도 없다고 전했다. 택배비와 포장비를 제외하고 3만원어치의 소고기로 선물세트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정남진장흥도요시장에서 장흥한우 할인 직판장을 운영하는 강난희(여·48)씨도 “구이용 한우선물세트가 15만~20만원선인데 이제 5만원에 맞추면 당장 국거리용밖에 없다”며 “매출도 3분의 2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민은 죽으라는 소리다”고 하소연했다.

／영광=김경민·박형진기자 kki@kwangju.co.kr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 이낙연 지사 “굴비 1마리 5만원 넘기도...김영란법 비현실적”

이낙연 전남지사는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국의 오랜 점대문화와 고쳐지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 몇 군데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인들의 애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

금액이 5만원인 점을 들어 “영광굴비를 예로 들어 5만원 짜리 선물이면 좋은 굴비 2 마리 정도 될 것이고, 1마리도 안 될 수도 있다”며 “굴비 1마리에 200만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은 이러한 것(현실적인 선물 등)을 세세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지만 잘된 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열대야 11일...잠못들었던 광주의 7월

폭염 9일 평년의 2배

7월 광주가 8월만큼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목포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길게 이어진 열대야가 나타났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월 광주의 폭염 발생일수는 9일로 평년(4.6일, 1981~2010년)의 두 배에 달하는 등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여섯 번째로 많은 폭염이 발생했다. 이는 8월 광주의 평년 폭염일수(6.6일) 보다도 많은 수치다. 광주에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기록적인 살인더위가 나타난 1994년(24일)이다.

광주와 목포는 가장 길게 지속한 열대야가 나타났다.

광주에는 최장 9일(7월23~31일), 목포에는 최장 8일(7월24~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1973년 기상관측 이후 가장 길게 계속된 열대야로 기록됐다. 7월 광주와 목포의 총 열대야 일수는 각각 11일과 10일로, 가장 높았던 최저기온도 각각 27.6도(역대 4위)와 27.3도(역대 1위)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7월19일 이후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2019세계수영선수권 사무총장 조영택 승인

## 비전문·초보에 맡긴 세계대회 국비확보·성공대회 산 넘어 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무총장에 조영택 전 국회의원이 최종 승인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영택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끝냈다. 지난 6월 22일 조 내정자에 대한 승인 요청 뒤 40여일만이다. 광주시는 이날 중 임시총회를 소집, 조 내정자에 대한 선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조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해 협의에 들어갔지만, 문체부 승인이 미뤄지면서 임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다.

문체부 승인이 한 달여 넘게 미뤄진 배경에는 조 내정자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등을 지내기는 했지만,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치를만한 전문성 미흡 등 부적합 인사로 판단해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내정한 김윤석 광주유니버시아드 사무총장 내정을 철회해 논란을 자초한데다, 시간에 쫓겨 비전문가이자 정치권 인사를 내정하다 보니 사무총장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문체부에 승인 요청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시청 안팎에서는 조 내정자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윤

시장의 선거대책부 총괄본부장을 지낸 인사였던 만큼 ‘논공행상’ 차원의 인사였다.

광주시는 사무총장 선임 절차가 끝남에 따라 조직위원회 총회에서의 사무총장 승인, 법인설립 인가 신청과 등기, 사무국 설립 추진 등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사무총장은 조직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사무국 사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 내정자가 턱없이 부족한 국비 확보 문제와 조직위와 지원본부 구성 등 정부를 상대로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할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회서 내년 예산 19억원이 책정되지 않았다.

또한, 세계대회와 스포츠 관련 실무경험이 없는 조 내정자가 조직위 ‘지각 출범’과 ‘사무총장 지각 인선’을 놓고 대회 취소라는 최악의 통째로 보낸 국제수영연맹(FINA)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